성탄 有感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을 앞에 놓고 모두들 웬 일인지 마음 속에 어수선한 연말 기분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같다..

해마다 크리스머스를 맞이하면 으레 무슨 운동이 전개되기 마련인데 금년 크리스머스에도 우리 사회 안에서 어느 누가 새로운 구호를 내걸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성탄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아드를 보내고 연하장을 보내는 일마저도 사치하다고 꾸지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삭막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일년에 한 번쯤 카아드를 주고 받는 일쯤은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이러한 카아드를 보내기 보담도 오히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웃과의 공동 유대 의식을 같이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웬 일인지 우리 주변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날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가 너무 바쁜 탓인지 건성 인사를 주고 받고 난 뒤 허둥 지둥 해어져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일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 아니 그 보다 나의 이웃을 찾기에 앞서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웃이란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쌍방 통행의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 집 옆에 사는 사람이나 내 직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장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내 이웃인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통 순경, 차장, 우편 배달, 운전수, 전화 교환수, 전기 회사 수리공 이러한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숨어서 남의 눈에 뜨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생활, 공적인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참된 이웃이 아닐까?

새벽 일찌기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 길가의 낙엽을 정리하는 인부들, 누구의 위로 한 마디 듣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공적인 일에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 마디를 보내 주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탄절과 새해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인사를 치루어야 할 일도 많기는 하지만 어느 조그마한 교회든지 기관에서 삭막한 성탄에 분주하게 지내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크리스머스 카아드, 연하장을 주고 받는 일도 우리 인간 관계를 윤택하게 해 주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새로운 이웃을 찾는 일이 이번 성탄에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